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도, 내년 예산안 9조1013억 편성... 사상 최초

행정명령 이행업소 대상 내년 2월 70만원씩 지원 포함  
경기부양·전북형 뉴딜·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반영  
송 지사 "도민이 필요한 부분 찾아 지원하는데 고민 거듭"

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9조1,01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원 시대를 맞는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2022년 민생안정회복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위드코로나 흐름에 맞춰,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1억원(4.4%↑) 증가한 7조4,416억원, 특별회계는 1,130억원(12.8%↑) 증가한 9,954억원, 기금은 934억원(12.4%↓) 감소한 6,643억원으로 편성했다.

(관련기사 2면)

중점편성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내년 2월 중 7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322억원, ▲일자리·청년 지원 8,194억원, ▲전북형 뉴딜 5,102억원, ▲감염병·재해예방·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2,497억원, ▲도민생활

개선에 3,674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전북도 산업지도 개편을 통한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747억원을 반영했다.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마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증가와, 시·군과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 지원경비 확대에 따라 자치재원이 부족할 수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세입을 편성해 도민의 일상생활 회복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방역에 앞장 서준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7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수준의 매출 규모로 '손실보상금' 지원규모 또한 작을 것으로 예상돼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결정했다"고 지원배정을 설명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2022년 민생안정회복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위드코로나 흐름에 맞춰,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7월부터 지원한 1인 10만원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활동 진작에 이어, 이번 선별 지원이 도민 일상생활 회복에 미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복자금 지급시기는 내년 2월 중 집행예정이며, 시·군의 재정행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친환경자동차 확대 흐름에 맞춰 전복도가 인프라구축을 통해 선

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그간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전액 국비로 추진중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충전기 설치에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해 오는 2024년까지 3년동안 급속충전기 50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대수가 70기 정도로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정부지원과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연 10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군산항일자리 확대 지원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량 구

입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와 함께 향후 수소차 충전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수소충전소는 3개소가 운영중이 있으며, 2023년까지 1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 설치 독려를 위해 '23년 신규 신청분부터 시·군비 부담 중 도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단순한 9조원이라는 예산규모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데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히며 "예산안 확정시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은 제38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11. 22)에서 2022년도 운영 예산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 '교통안전, 우리에게 맡겨요' | 상호협력 WIN-WIN 협약 체결식

자치경찰위-TBN전북교통방송-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1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TBN전북교통방송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함께 하는 WIN WIN 상호 협력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이정상 TBN전북교통방송 사장, 박경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방준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보호업무, 지역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등 자치경찰과 관련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상호 지원을 도모에 나선다.



특히, 협약을 통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사무와 제고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업무, 지역내 교통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개발해 적

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TBN전북교통방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12개의 FM 방송 중 전북 네트워크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TBN전북교통방송은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캠페인 등 자치경찰과 연계된 지역맞춤형 교통 정보제공을 신속히 방송하고,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교통안전 교육사업, 도로교통 안전사업 등 자치경찰과 연계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개최 기원합니다'

국카스텐 하현우  
국악인 남상일 등  
전북 출신 스타들  
응원 릴레이 잇따라

오늘부터 도민 응원  
영상 메시지 공모 진행



국카스텐(사진 왼쪽)과 국악인 남상일.



(사)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도민 지원위원회(이하, 범도민지원위)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여러 유명스타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 출신인 가수 하현우(국카스텐 보컬), 국악인 남상일,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성현은 물론,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가수 김병수 개그맨 윤재 등 많은 유명스타들 역시 세계잼버리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면가왕 최다 연승의 가왕인 하현우(국카스텐 보컬)는 "미래의 땅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꿈과 우정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잼버리 성공개최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전북도 홍보대사인 국악인 남상일은 "멋진 축제가 새만금에서 열리니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전북도로 집중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범도민지원위는 도민들의

응원 동참을 위해 12일부터 '세계잼버리 응원 영상 메시지 공모'를 진행한다. 유명스타, 도민 응원 영상 메시지는 '전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며, 도민 응원 메시지 공모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잼버리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잼버리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잼버리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